

교내총기사건 방지 위해 '투명 책가방' 의무화



▲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착용한 투명한 배낭. 사진=nbcnews.com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교육청들이 교내 총기 관련 사건 방지를 위해 투명 책가방(clear backpack) 의무화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남부에 위치한 클레이턴카운티 교육청은 오는 새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클레이턴카운티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학과 함께 본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모든 학생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관할지역 학생 5만2천 명 전원에게 투명 책가방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인근 록데일카운티 교육청도 올해부터 전교생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소지하도록 조치했다. 애틀랜타 교육청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투명 책가방만 허용하고 있다.

투명 책가방은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져 있어 가방을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해 관할 교내 및 스쿨버스에서 100여 정에 가까운 무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무기 가운데는 돌격소총인 AR-15와 글록 48 권총 등 총기를 비롯해, 칼, 전기충격기, 테이저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모시즈 비슬리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감은 "지금 우리 사회에 발생한 폭력이 학교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투명 책가방 의무화 이유를 밝혔다.

낙태권 폐지, 대학 지망 변수로 부상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이 대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전날 일부 학생들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학생과 대학 진학 상담사 20명을 인터뷰한 결과 학생이 혹시나 낙태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도 시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걱정한다."면서 "낙태 논란 이전에도 일부 학생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재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보수 성향의 주에서 낙태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이 같은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리행진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진학 상담사들은 낙태 문제가 대학 진학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이르지만, 학생과 대화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언급됐고, 일부는 꿈꾸던 대학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낙태가 대학 선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뉴욕의 상담사인 제이슨 와인가튼은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트랜스젠더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제한하는 법을 가결했을 때

일부 학생이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명문대인 듀크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와인가튼은 "낙태 문제가 가장 문턱이 높은 대학 중 하나에 입학하는 것을 단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화 지지자 16% "트럼프 대신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 찍겠다"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인기가 높지만,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공화당 당내 경선에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전국 3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의 지지도로 6명의 후보 중 선두를 달렸다. 이는 2위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25%)보다 두 배 가까운 지지율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마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은



▲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한 자릿수 지지를 받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았다. 공화당 지지자 중 1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 후보를 찍거나 투표에 불참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지자 비율(8%)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NYT는 이 같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정서 때문에 국정 지지도가 33%에 불과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44%대 41%로 앞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날말퍼즐 정답

1 동	네	2 북			3 속	임	4 수
위		5 어	6 불	성	설		증
7 각	8 오		찰			9 요	기
	아			10 베	레	모	
	11 시	누	이			조	
12 호	스		13 울		14 모	15 레	
의		16 괄	목	상	17 대		시
18 적	대	시			19 책	갈	피

숨은그림찾기 정답

